

# 그릇됨에 집착하는 견해를 떠나라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에 들어가는 것을 장애하는 인아견(人我見)을 본문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이 가운데 먼저 공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여래의 법신이 공한 것이라거나 모든 존재의 사물들을 공하다는 쪽으로만 보면 진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야부(般若部) 계통의 경전에서는 흔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본성이 공한 것이다. 열반이니 진여니 하는 것도 본래 공한 것이어서 모든 상을 떠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공하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여 일체가 허무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진여 법신에 일체 부자유스럽고 허위적인 요소가 없다는 의미에서 한 말의 잘못을 모르고 공에만 치우친 소견을 가지는 것이다. 진여는 공한 반면에 공하지 않는 불공(不空)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하지만 그 속에 진실하고 자유롭고 지극히 선한 온갖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루성공덕(無漏性功德)이라는 마모

되지 않는 언제나 한결같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공묘유(真空妙有)의 도리이다.

반면에 여래장 안에 일체 공덕의 범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듣고 여래장 안에 육체와 정신적 개별적인 근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소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 진여는 진실하고 자유로워 언제나 선한 공덕으로 유지

경전 속에 설해진 말에 “여래장 곧 중생의 마음에는 증감(增減)이 없지만 그 자체 안에 온갖 덕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을 듣고 여래장 속에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각각 차별되게 있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소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경전 속의 말씀이 진여의 면에 입각해서 설해진 것인데

그것을 생명의 면으로 이해하여 생겨난 오해이다. 다시 말하면 업식(業識)에 의해서 생명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여래장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 가운데 상키야(Samkhya:數論)학파에서는 우주의 근본적 원리를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두 가지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현상세계 전개 원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원리인 푸루사(Purusa)와 또 하나는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Prakriti)라고 한다. 푸루사는 지(jina知), 또는 사(cetana, 思)를 그 본질로 하며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다만 프라크리티를 관조(觀照)할 뿐이라 한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무한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푸루사는 생사, 윤회, 해탈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인도의 우파니샤드 철학 이래 개아(個我)의 실체로 간주된 아트만(Atman)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는 활동하는 것을 그 본성으로 한다. 그것은 질료(質料)의 인자(因子)가 되는 것인데, 순

수성과 격동성 그리고 무겁고 조잡하고 어두운 요소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푸루사의 관조를 기회(機會)으로 그 세 가지 요소 중 격동성이 발동하면 전변(轉變)이 시작된다고 한다.

물질적 원리인 프라크리티는 정신적 원리인 푸루사와 결합되어 있다. 그 결합은 현실적이며, 영원하여 시작이 없는 것이며, 해탈을 통해서 비로소 끝나게 된다. 그 결합 양식은 일종의 병렬식(並列式) 결합으로 하나의 내적 일치를 이루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키야 학파의 이원론적인, 마음과 육신을 병렬적 결합으로 보는 입장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초월적 지혜라는 사실 곧 진여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망각하여, 업식이 발동하는 망념의 단계로 끌어내려 그것을 실체인양 간주하는 실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교학자들은 보고 있다.

상키야 학파의 이러한 논리전개가 얼핏 기신론과 흡사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속명론이나 결정론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근본 출발에서부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기신론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래장에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같이 들어 있다 집착하는 경우를 사견(邪見)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생활염불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잠자리에 들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 날 때, 그리고 끼니때마다 식사를 하며 걸어 다니며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함을 느낀다. 살아있음은, 살아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음은 하나의 축복이요 기적이다.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다.

10년 전 새벽, 메주콩 삶는데 쓰일 나뭇동글을 어깨에 메고 법당계단을 내려오다 나는 앞으로 쓰러졌다. 한쪽 다리와 팔이 기능을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직감적으로 중풍이 왔음을 느끼고 쓰러진 곳에서 주저앉아 지 70여 m를 한쪽팔과 한쪽다리와 이겨내야 한다는 의지력으로 온갖 힘을 다해 오게 된다.

중국에서 머문 7년 동안 침실을 익혔고, 티베트에서 3년 머물며 티베트 의학의 기초를 배웠다. 기어오르

설거지 하며 바느질하는 즐거움, 나무며 대숲이며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나의 벗이다. 혼자 있으나 여럿과 함께하는 여유로움이 있다. 게으름은 병이다. 집착 또한 병이다. 일을 찾아서 부지런하게 움직인다. 어느 모임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단호하게 정중히 거절한다. 돈과 명예가 나의 건강을 지켜줄러 없기 때문이다.

눈물은 슬플 때만 흘리는 게 아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해 잔잔한 기분으로 울먹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세상은 빛과 어둠이 반반이지만 가능한하면 긍정적인 착각으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 마음을 열고 보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삶의 지향목표를 돈, 사랑, 성공, 명예, 정의 등에 두고 힘을 기른다. 성취감으로 느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행복을 누리기도 전에 넘치고 지나치고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 건강을 잃는 경우는 참으로 많다.

## ‘감사·고마움·미안함’ 나의 생활염불 꾸밈과 조작 벗어 버리면 자유롭다

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였지만 옷을 벗는데도 반쪽기능이 비어있어 힘겨운 일이었다. 알고 있는 상식과 의술을 총동원해 주요 부위마다 침을 꽂고 있었다. 머리, 등 몇 군데에서는 부황으로 피를 뽑고 있었다. 온 몸에 서는 땀이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땀방울이 기적을 몰고 왔다. 기능을 잃었던 팔과 다리가 따뜻해지며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린 애처럼 기뻐 한 시간쯤 울다가 곤한 느낌에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생활염불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로 뒤바뀌었다.

지금은 모든 게 정상이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다. 건강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린다.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마음 편하다. 과욕은 언제나 재앙을 불러들인다. 꾸밈과 조작을 벗어버리면 이르는 곳마다 자유롭다. 감출 것도, 드러낼 일도 없이 자연인으로 사는 삶이 수행자의 삶이다. 부족하나 넉넉하고 비어 있으나 당당하다.

마당 쓸고 도량정소하며 빨래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 열 개를 움직일 수 있으면 이는 선택된 사람이다. 두발로 걷고 계단을 오를 수 있으면 이는 일상의 기적이다. 화낼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웃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다. 법당에서 예뻐드릴 때도 기쁘지만 나무뭉치에서 앉아 조는 기분도 솔직한 행복이다. 돈보קי 없이 바느질에 실을 꿰는 것도 기쁘지만 한가하게 웃을 수리하는 바느질도 행복하다. 빨래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 남긴다는 세 마디가 내게 있어 생활의 염불이 된지 오래이다. 언젠가는 마지막 그림자를 남겨두고 한 점 바람으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겠지만 나는 나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타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유로운 여행을 꿈꾸고 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했습니다’를 나 홀로 있는 곳에서 남길 수 있게.

# 貧者 구하는 것이 보살의 자비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⑦ 시주받는 이가 갖는 복덕

施主乞者增長品第四 (시주걸자증장품제4) 有大悲者能處生死。種種施與滅眾生苦。若能如此善住生死。(유대비자능 처생사. 종종시여멸중생고. 약능여차 선주생사.)

福德善丈夫 悲心施惠手 (복덕선장부 비심시혜수) 拔貧窮 泥 不能自出者 (발빈궁어니 불능자출자)

번역 시주자와 구걸하는 이에게 증장되는 것에 대해 설명한 품

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능히 삶과 죽음을 잘 대처할 수 있나니, 가지가지 보

시를 베풀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생사에 잘 머무르는 것입니다.

복과 덕을 지닌 여진 대장부는 자비심과 은혜로운 손길로 보시하기와, 가난과 빈궁의 진흙탕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를 건져냅니다.

## 해설

이번 ‘시주걸자증장품제4(施主乞者增長品第四)’에서는 보시를 베푸는 이에게 증장되는 복덕만이 아닌 보시를 구걸하는 이에게까지 증장되는 복덕에 대해 설명하였다.

놀라운 것은 보시가 베푸는 이에게만 지혜와 복덕을 증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를 받는 이도 지혜와 복덕이 증장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네 번째 품의 시작에서 먼저, 보시를 베푸는 이의 자세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로 보시를 베풀어야 보시를 구걸하는 이도 지혜와 복덕이 증장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보시를 베푸는 이는 생사(生死), 즉 삶과 죽음에 잘 대처하며, 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보시를 베푸는 이에게 큰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든다. 불도(佛道)를 배우는 것이 생사(生死)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가? 생사(生死)에 얽매이면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윤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곧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생사(生死)에 잘 대처하고, 잘 머무는 것은 곧 생사(生死)의 고통에 얽매이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보살이 지나야 할 생사(生死)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사실이다.

《불설아사세왕경(佛說阿闍世王經)》에 이르기를, ‘아사세 왕이 묻되, “무엇이 생사이며, 생사가 없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곧 대답하되, “모든 지나가버린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며, 오지 않은 미래도 생각하지 않으며, 역시, 현재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는 무상(無常)하거니와, 모든 법은 증장되거나 소멸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사(生死)를 짓는 것이 곧 생사(生死)가 없는 것입니다.”(阿闍世復問 “何謂生死無生死?” 則言 不念過去以盡.亦不念當來未至.亦不念今 “現在而無常, 於諸法不念有所增有所滅, 作者是生死則無生死.”)’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살의 대처와 대 자비심의 보시는 스스로 가난과 빈궁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산업 지붕 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정·목어

대북   2자   태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www.yangjikkukak.com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